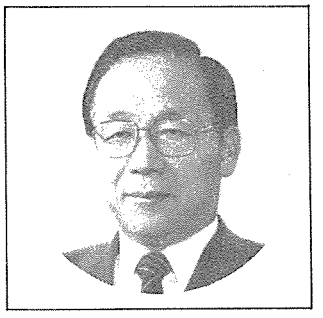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

"2000년을 열어가는 國民 科學化운동 전개"



金 基 衡 理事長

1990년 새해에는 급격한 민주화 물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욕구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화합과 저력으로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웅비하여 선진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전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기를 맞아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어가면서 사회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부상되었으며 또한 우리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과 끊임없는 시장개방 압력 그리고 우리경제의 기술잠재력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질적조정미흡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등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진통을 겪어가면서 세계 속의 한국이 우뚝 솟아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대도약의 전환점에서 2000년대의 밝고 풍요로운 민주복지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라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과학기술인은 물론 정부, 기업가, 교육자가 다 같이 공감하고 국민적 역량을 이에 결집하여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일천만 청소년 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주부에서 직장인, 농어민과 도시민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참된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같이 동참하고 노력하고 힘을 합할 때이다.

4 대 주요사업

따라서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에서는 2000년대를 지향한 과학한국의 입지를 튼튼히 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저변확대를 목표로 ①청소년 과학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본격화하고, ②대학생, 교사 및 가정주부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며, ③과학기술 계몽과 홍보를 적극화하고, ④산·학·연의 연계심화와 국제협력 교류증진으로 미래 지향적 과학하는 나라의 기풍을 조성함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青少年 科學化

青少年 科學化사업에 있어서는 과학의 꿈나무를 가꾸는 일념으로 각종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

의 신장을 위한 과학상상그림 그리기대회를 전국대회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벽지 농어촌어린이를 위한 이동과학차를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과학차에서는 과학실험과 키트공작조립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아울러 실기를 통하여 기계의 이론과 원리를 함께 터득할 수 있게 하고 비디오 녹화방영과 우수과학영화를 감상케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상과 외국의 과학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우수과학도서를 개발하여 우선 벽지 낙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고 중소도시 청소년들에게도 보급하여 어려서부터 과학자로서의 꿈을 길러주고 과학적 탐구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과학도서 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 사람이 1권 이상의 우수과학책을 읽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國民的공감대 확대

한편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을 통하여 대학생 및 과학교사 그리고 과학언론인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국가발전과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국가 장래를 걱정할 줄 아는 지식인이 되고 과학의 개척정신으로 내일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로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과학교사에게는 심포지움을 통하여 앞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는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일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지도와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큰 사명감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문명의 이기를 보다 편리하게 보다 윤택하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의 과학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자녀들에게 과학을 존중하고 기술을 사랑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어렸을 때부터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주부의 역량을 함양시켜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미신적 인습타파 啓蒙과 弘報적극화

특히 아직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이 남아있는 비합리적인 생활방식이나 마음속 깊이 잠재한 미신적 인습 등을 탈피하도록 과학적 사고와 생활양식을 계몽 보급하여 모든 국민의 생활이 농촌이나 도시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지혜롭게 생활하는 국민적 기풍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나 기술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농어민, 도시민, 기업인, 정부 그리고 정계나 교육계, 언론계 등에 걸쳐 공통의 공감대를 이룩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갈 때 힘차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전국민적 차원에서 과학화운동의 불을 붙여 과학기술입국의 토대를 튼튼히하고 내일을 향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밝은 2000년대를 지금부터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科學化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전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과학기술 풍토조성과 국민과학화운동의 구심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동안 청소년 및 국민 과학화 사업을 계몽적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과학화 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전개, 대학생들을 위한 대화의 광장 마련, 국민생활의 과학화 및 과학언론 창달지원 그리고 과학홍보활동 등 제반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2000년대에 과학기술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함에 일익을 담당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